



1930년대 프랑스
인민전선의 교훈
8~9면

프랑스 등 유럽에서
파시즘의 급성장 그리고
파시즘 반대 투쟁
2~4면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5, 16, 15면

대학병원·개원의
집단 휴진
6면

대북 송금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
7면



우크라이나 전쟁
10~11면

프랑스의 수십만 대중이 파시즘 반대 행진을 하다

이것이 극우에 맞선

유일한 대안이다

관련 기사 2~3면

6월 15일 토요일 프랑스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파시스트와 그 동맹자들의 부상을 저지하려고 행진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파리에 모인 25만 명을 포함해 프랑스 전역에서 64만 명이 행진했다고 밝혔다. 대도시와 지방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파시즘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보여 줬다. 이런 동원이 파시즘에 맞선 대규모 공동전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200여 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는 조르당 바르텔라와 마린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이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선전하고, 6월 30일과 7월 7일로 예정된 조기 총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항하는 첫 행동이다.

이 투쟁의 성패는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에서 파시스트가 중대한 돌파구를 열면 이주민·무슬림을 비롯해 노동계급 사람들 모두에게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과 영국 나이절 패라지 지지자들 같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다.

프랑스의 신자유주의적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지난 주말 유럽의회 선거에서 자신의 정당이 15퍼센트도 득표하지 못한 반면 국민연합이 31.5퍼센트 가까이 득표하자, 한 시간 만에 조기 총선을 선포했다.

파시스트의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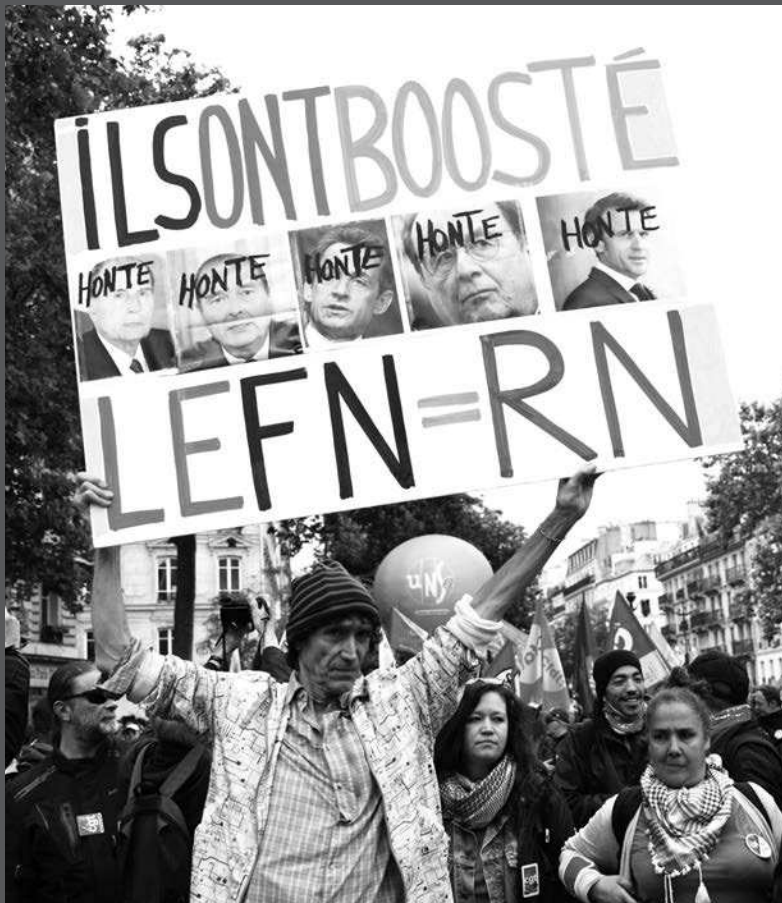
프랑스 노동조합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적, 사회적 분출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극우가 권력을 잡을 것이다.

“우리의 공화국과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파시스트의 위험은 실질적이다. 바르텔라는 자신이 총리가 되면 “범법자와 이슬람주의자”를 추방할 수 있게 하는 이민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행동에서의 단결과 토요일 시위의 에너지를 이어간다면 국민연합을 저지할 수 있다.

프랑스 정치는 격동에 휩싸여 있다. 르펜의 조카 마리온 마레샬은 유권자들에게 국민연합 투표를 호소하다가 자기가 속해 있던 경쟁 극우 정당에서 쫓겨났다.

프랑스 주류 우파 정당 공화당의 대표 에릭 시오티는 국민연합과 선거연합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긴박했던 48시간 동안 시오티를 당 지도부에서 제명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다.



마크롱을 포함한 역대 프랑스 대통령들의 신자유주의와 억압적 정책들은 국민연합 같은 파시스트의 성장에 도움을 줬다

프랑스

수십만 명이 파시즘에 맞서 행진하다

찰리 킴버

시오티는 제명 결정에 항의해 당사 사무실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농성했다. 그러고는 동료들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제명을 중지시켰다.

프랑스의 보수 정당이 파시스트의 부상에 따라 와해되고 있다. 한편, 왼쪽에서는 신(新)인민전선이 결성됐다. 주류 사민주의 정당인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장뤼크 멜랑송의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가 결집한 것이다.

신인민전선을 결성하라는 압력은 주되게 아래로부터 왔다. 청년, 이주민,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도자들에게 국민연합에 맞서 단결하라고 요구했다.

신인민전선은 인종차별과 국민연합에 반대하자고 호소한다. 또, 가혹한 실업급여 개악을 폐지하고, 지난해 대중

핵심 동원은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파시즘에 맞서 싸우도록 기층에서 이뤄져야 한다.

파업을 촉발한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처를 되돌리겠다고 공약한다.

그러나 신인민전선의 공약을 지배하는 것은 사회당의 정치다. 신인민전선은 멜랑송의 입장과는 상반되게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주권과 자유, 영토 보전”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다.

팔레스타인에 관해 신인민전선은 “하마스의 학살 테러 이래로 억류된 인질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하마스의 신정주의 프로젝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옹계도 지지해 온 멜랑송에게 이것은 패배를 뜻한다. 멜랑송의 적들은 환호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 지도자 크리스티앙 피케트는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10월 7일에 벌어진 사건을 신정주의(따라서 전체주의) 조직이 저지른 학살 테러라고 말할 수 있게 돼 정말 후련하다.”

신인민전선 후보들 중에는 사회당 소속 전 대통령인 프랑수아 올랑드도 있다. 올랑드는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억압적 법률들을 통과시켜 마크롱과 파시스트들이 부상할 조건을 마련한 자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인민전선에 적극 투표하는 것이 옳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핵심 동원은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파시즘에 맞서 싸우도록 기층에서 이뤄져야 한다.

좌파들이 우파와 한 타협은 르펜에게 도움이 됐다. 예컨대 대선에서 르펜에 맞서 마크롱을 찍으라는 호소는 이후 마크롱이 자행한 공격들로 인해, 좌파에게 먹칠을 한 꼴이 됐다.

방벽이 아니라 디딤돌

마크롱은 파시즘의 전진을 막을 방벽을 자처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파시즘 부상의 디딤돌임이 드러났다.

마크롱의 정책이 낳은 고통과 절망이 파시즘의 성장을 가속시켰다. 마크롱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고 국가의 탄압 기구를 거듭 강화하는 바람에 파시스트들의 정책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게 됐다.

주간지 <르푸앵>이 웹사이트에서 최

▶ 3면으로 이어짐

용어설명

프랑스 총선 방식

6월 30일 1차 투표, 7월 7일 결선 투표를 치러 국회의원을 선출할 것이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가려지려면, 등록 유권자 중 최소 25퍼센트가 투표하고 한 후보가 그중 과반을 득표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등록 유권자 수의 12.5퍼센트보다 더 많이 득표한 후보들을 결선에 올려 결선 투표를 한다.

▶ 2면에서 이어짐

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연합이 29.5퍼센트, 좌파 선거연합이 28.5퍼센트의 지지를 받아, 18퍼센트의 지지를 받은 마크롱의 선거연합을 3위로 밀어냈다.

또 다른 여론 조사에 따르면 르펜은 국회 전체 의석 577석 중 195~245석을, 신인민전선은 190~235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 연합의 의석은 두 자리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파시즘에 맞서 행동하는 광범한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폭넓은 대결에 임하는 운동도 있어야 한다.

인종차별에 맞서

노동조합이 시위를 소집한 것은 다행이지만, 노조는 국민연합의 인종차별주의와 공공연하게 대결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들의 선전은 대부분 국민연합의 친기업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다.

지난 6월 15일 토요일 인종차별 반대 단체 '연대 행진'은 이렇게 밝혔다. "청원과 투표 호소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종차별·파시즘에 맞선 단결이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프랑스의 누벨칼라도니 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단결, 지난해 경찰 폭력에 맞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과 연금 개악에 맞서 싸운 수많은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파시스트들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몰아내려면, 권력자들이 만들어 낸 절망과 원자화라는 운상에서 파시스트들이 활개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다. 그리고 행동은 거리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주민 강제 수용소를 없애고, 모두에게 자유를! 반(反)이민법을 모조리 폐지하고, 모든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두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라!"



6월 15일 파리 시위대가 '극우를 물리치기 위한 단결'과 '신인민전선 승리를 촉구하는 배너를 들고 있다

사진 출처: Jeanne Merjoulet (블리커)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파시스트의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파시스트들은 그저 의회를 장악하려는 것만이 아니다. 국민연합의 자신감이 커질수록 이주민·무슬림·좌파를 공격하려 드는 거리 깡패들도 기세가 오른다.

그런 깡패들은 아직 세가 크지 않다. 그러나 바르텔라와 르펜이 그런 자들을 대놓고 부추기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을 크게 고무할 것이다.

프랑스 북부 소도시 낭시에서는 파시스트 폭력배가 인종차별 반대 행진을 공격했다. 파시즘 반대 활동가들이 반격하자, 경찰이 나서서 그 파시스트들을 지켜 줬다.

5월 14일 금요일 리옹에서는 파시스트들이 "우리가 빌어먹을 나치다!" "이슬람은 유럽에서 꺼져라!" 하고 외치며 거리를 누볐다.

이 깡패들을 저지하는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려면 거리 전투뿐 아니라 더 장기적인 활동도 필요하다.

2023년 가을, 파시스트들이 프랑스 북부 생브리외시(市)의 지역 주민 회관 '라세르'를 연거푸 공격한 적이 있었다.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잘렐과 마누는 이렇게 썼다. "라세르"는 연대의 공간이다. 투쟁에 연대하는 공간이자 많은 단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조경 동호회나 합창단뿐 아니라 파시즘 반대 활동가들이나 쿼터 단체들도 그곳을 이용한다. 그런데 '라세르' 건물 외벽에 네오나치 구호를 낙서한 사건이 세 차례나 벌어졌다. 건물 침입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다.

"11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쇠파



르펜이 승리한다면 파시스트 거리 깡패들의 기세도 오를 것이다

사진 출처: COMTE DU 9 MAI

이프르 건물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다섯 명을 공격했다. 그 만행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우리는 '라세르'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지역 반(反)파시즘 단체의 힘을 합쳐, 공포와 분노를 행동의 원동력으로 전환하려 했다.

"우리는 노동조합, 페미니스트 단체, 쿼터 단체, 생태주의 단체, 반(反)파시즘 단체 등 극우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단체들과 접촉했다. 당시의 물리적 공격은 파시스트들의 위협성을 실감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맞서기 위해 광범한 단결 행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자아냈다. 우리가 접촉한 단체들 대부분이 함께 연대체를 발족하자는 제안을 수락했다."

"매우 고무적이었던 초동 모임에는 약 20명이 참가했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 힘을 되찾기, 집단적으로 대응하기
- 파시즘 반대가 더는 '안티파' 단체들만이 아니라 더 광범한 사람들의 과제

임을 분명히 하기.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의 호소문은 자본주의 반대를 참가 자격으로 내걸지 않았지만, 복지를 파괴하는 정책들이 극우의 전진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면에서, 우리는 마크롱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파시스트들이 성장하도록 기를 닦아 준 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 파시즘의 위험성을 알리고 극우 깡패들과 점잖은 체하는 극우 정치인들 사이의 연계를 폭로하기.

● 국민연합이 사회적 기반을 늘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사악한 본성을 다시 분명히 드러내기.

● 반(反)파시즘 투쟁의 정당성을 재확립하기.

"첫 공개 모임에는 100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출처: Charlie Kimber, 'Hundreds of thousands march against fascism in France' (2024. 6. 15) / 번역: 김준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 기성 정치의 위기 심화로 득을 보고 있는 극우
그러나 극우의 득세는 필연적이지는 않다

영국의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의 지도자 나이절 패라지의 역설은 그가 유럽 대륙을 싫어하면서도 영국 정치를 그곳의 정치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누가 했던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지금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이다.)

현 보수당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패라지는 보수당을 접수하거나 대체하려고 있다. 이렇게 극우가 정치 무대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과정은 유럽 대륙에서 훨씬 더 진척됐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라.

독일에서는 집권당인 독일 사회민주당(SDP)이 중도우파인 기민·기사연합(CDU/CSU)과 극우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밀려 3위에 머물렀고, 이탈리아에서는 총리 조르자 멜로니의 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당이 선두를 달렸다. 이것만으로도 뉴스거리는 충분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은 실로 경악스럽다. 마린 르펜의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연합(RN)이 31퍼센트를 득표해 1위를 차지한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중도우파 연합은 14.6퍼센트를 득표하는 데 그쳤고, 마크롱은 이에 대응해 조기 총선을 발표했다.

마르크스가 남긴 가장 빼어난 저작의 하나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이다. 신랄한 조소와 비판이 담긴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인 루이 보나파르트가 1848년 혁명의 패배를 이용해 황제(나폴레옹 3세)로 등극한 과정을 분석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다. “나는 ... 프랑스의 계급 투쟁이 낳은 상황과 세력 균형 덕분에 어떻게 기괴하고 별 볼 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없는 자가 영웅 노릇을 할 수 있게 됐는지를 보여 주려 했다.” 마르크스는 기업주들과 노동자들 사이의 투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덕분에 루이 보나파르트가 역사의 무대에서 영웅 행세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성 정당들의 약화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런 우스꽝스런 ‘영웅’의 더 우스꽝스러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에 넘치는 칭송을 받아온 이 기업 경영자는 전통적인 중도와파 정당들과 중도우파 정당들을 약화시키고 르펜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이나 가까스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마크롱을 수혜자로 만든 상황은 유럽 전반의 현상이기도 하다.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는 정당 체계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긴축과 이후의 팬데믹, 물가 급등은 이 과정을 더 가속시켰다.

지난해 마크롱은 대중 파업 물결의 뜻을 거스르고 의회 다수의 승인을 건너뛴 채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혁”을 강행해 이 과정을 더 심화시켰다. 국민연합의 전진에 대응해 마크롱은 정당 체계의 파편화를 더 심화시켜서 자신이 중재자를 자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는 듯하다.

그러나 마크롱의 도박은 실패하고 있는 듯하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합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3분의 1을 득표할 것이다. 주요 중도우파 정당인 공화당은 당대표가 르펜과의 동맹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한바탕의 소극과 분열로 붕괴했다. 공화당에게 이는 굴욕적인 운명이 아닐 수 없다. 공화당은 [자신을 레지스탕스의 상징적 인물로 내세운]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인종차별 정책은 국민연합을 더 강화시켰다. 국민연합의 지도자 마린 르펜

드골 장군의 1958년 제5공화국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성된 신공화국연합(UNR)으로 시작된 정당이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 자본주의 정치를 지배해 온 나머지 기동들도 비슷한 붕괴를 겪고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과 영국 보수당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등장한 최초의 근대적 대중 정당들이다. 두 당 모두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는 1990년대에 이탈리아 “제1공화국”과 그것을 지배하던 기독교민주당과 공산당이 붕괴하면서 득을 본 우익 정치인들 중 가장 최근(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선거적 이득

그렇다고 극우의 전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마크롱의 책략은 신인민전선의 결성으로 왼쪽으로부터 타격을 입었다. 비록 그 선거 연합은 깨지기 쉽고 첨예하게 분열돼 있지만 말이다.

물론 영국 노동당은 보수당 와해의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다. 노동당은 여전히 노동조합과 지방 정부에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도 기반이 잠식되어 약화됐다. 최근에는 스태머가 당내 좌파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지지함으로써 이 과정을 더 심화시켰다. 여전히 노동당은 여론 조사에서 보수당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두 당 모두 군소 정당들에게 지지를 빼앗기고 있다. 승자독식 선거 제도의 조화 덕에 스태머는 비교적 적은 표를 얻고도 큰 격차로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

체제가 대체로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면 기성 자본주의 정치 세력의 약화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구 온난화와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는 위태로운 정당 구조들에 또 다른 타격을 가할 공산이 크다. 중요한 물음은 누가 거기서 정치적으로 득을 볼 것이냐다.

번역 이원웅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는
정당 체계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팬데믹과 물가 급등은
이 과정을 더 가속시켰다

이슬람 혐오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하려는 국정원

4월 30일 국가정보원이 연례 보고서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슬람 혐오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마스 사태’ 이후 일부 국내 단체와 외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이 유대인·이스라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거나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이슬람 극단주의 선전·선동에 동조하거나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외국인 수십여 명이 적발, 강제 퇴거되었다.”

마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테러리스트와 연계가 있는 듯한 냄새를 풍기며 운동을 공격할 빌미를 찾는 수작이다. 보안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허위·날조로 무슬림 이주민을 낙인찍으며 운동을 공격하거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04년 국정원과 법무부는 한 무슬림 이주노동자 커뮤니티를 ‘반한(反韓) 이슬람 단체’라며 회원 3명을 추방했다.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과 우파 언론들이 나서서 이 단체가 해외 테러 단체에 돈을 보냈을 수 있다며 마녀사냥했다. 그러나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회원 3명의 추방 사유는 미등록 체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반감이 광범했고,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반감이 증대하던 때였다. 국정원과 법무부의 마녀사냥은 이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었다.

2010년 경찰은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성직자로 근무하던 한 파키스탄인을 탈레반 조직원이라며 수사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력 강화의 명분으로 이용됐다. 당사자와 그 가족은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경찰은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했고,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로 끝났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총기 난사와 자살 폭탄 공격이 벌어지자, 국정원은 테러 관련 동향보고라며 그해 “시리아 난민 2백 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고 “철저히 감시하



이웃이자 동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무슬림 이주민들의 능동적 참가는 찬양·고무할 일이다

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위험 인물 취급한 것이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앞다퉈 보도하며 난민과 테러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겼고, 정부는 이를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이용했다.

진정한 테러리스트

제국주의자들과 시온주의자들이야말로 테러리스트다. 지난 8개월만도 거의 4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고, 그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였다. 미국 정부는 스스로 말한 ‘레드 라인’을 거듭 옮겨 가며 이스라엘에 돈과 무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국정원 보고서의 주장은 이 진실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돌리려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개입이 전 세계에서 테러 위협을 높이는 진정한 원인이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쑥대밭을 만들고 종파간 갈등을 부추겼다. 미국의 중동 개입이 낳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 아이시스(ISIS) 같은 종파주의적이고 반동적인 조직이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중동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슬람 혐오를 의도적으로 부추겨 왔다. 그 결과 서방 세계에서 무슬림들은 온갖 천대와 차별로 고통받았고, 그들 중 극히 일부가 이에 대한 반발로 테러 전략에 이 끌리기도 했다.

국정원 보고서가 하마스를 아이시스 비슷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도 열도당

토였다.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에 맞선 하마스의 무장 투쟁은 정당하다. 하마스는 현재 팔레스타인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다. 하마스가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부패한 부역자 집단인 팔레스타인 당국PA를 누르고) 승리했을 때 쿠데타를 획책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집트 독재 정권, PA였다.

국정원 보고서에서 “유대인·이스라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며 굳이 유대인을 별도로 언급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일 것이다. 이스라엘 비판이 곧 반유대주의라는 시온주의자들의 프로파간다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도 유대인이 참가해서 연설도 했다. 그는 이스라엘 규탄 발언을 했고, 참가자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줘서 참가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저변을 확대하며 성장해 가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억누르기 위한 조처를 취해 왔다.

정부(한동훈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난민이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을 억압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주민·난민이 능동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겨냥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출입국관리 공무원, 경찰,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자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한 이주민들을 사찰·감시하는 일이 감지되고 있다. 또,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이 올해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집

시범 위반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이번 국정원 보고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 예고하며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의 연장이다.

이는 정부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서방의 이스라엘 지지에 대체로 보조를 맞춰 왔다. 그런 한국 정부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성가신 일일 것이다.

최근 이주노동자가 다수인 수도권 무슬림 커뮤니티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참가하면서 운동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이주민들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참가하는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정치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주민 유입을 늘리면서도 통제를 강화하려는 한국 정부는 이 또한 탐탁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일부 국내 단체와 외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열린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국정원 보고서가 주려는 인상과 달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한국인을 포함해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매우 개방적인 운동이다.

무슬림뿐 아니라 비무슬림·서방 세계 출신 이주민들도 중요한 일부로 참가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지지도 높고 있다. 한국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이 가장 급격하게 오른 나라이다.

차별받는 집단인 무슬림,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고국과 먼 타지에서 능동적으로 정치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찬양·고무해야 마땅한 일이다.

다양성이 핵심 특징인 이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무슬림에 대한 편견에 단호하게 맞서며, 그들의 자체 활동을 더욱 고무하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운동에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의 야비한 음해와 사악한 의도를 좌절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임준형

대학병원·개원의 집단 휴진

시장 의료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 주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섰다. 다른 빅5 병원 교수들도 순차적으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미 적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 예약이 취소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계속 가동한다지만, 언제든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의사협회(의협)도 18일 집단 휴진에 나설 예정이다. 주로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동네 병·의원이지만, 매일 약을 먹거나 상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 아이·노인이 아플까 봐 전전긍긍하는 보호자들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의협 등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소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필요한 일이다. 윤석열의 사이비 의료 개혁에 일말의 기대조차 없는 사람들도 이에 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의사협회는 자기 편한 대로 시장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가령 의협 회장이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의사인 임현택은 소청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청과의 수가가 낮아 의사들이 기피하니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것이다. 의사 수를 줄이고 수가를 올려 수입을 대폭 늘리면 소청과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10여 년 사이 소청과 의사 소득이 다른 의사보다 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저출생의 영향이 가장 크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소청과 전문의들은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사들 사이의 소득 차이와 그로 인한 쏠림 현상은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의 불평등과 불균등성을 보여 줄 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소청과 의사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대학병원 소청과는 만

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2억 원이 넘는 연봉으로도 소청과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병원들이 있다.

시야를 조금만 넓혀 보면, 지금처럼 취업난과 실질소득 감소가 심각한 불황기에 필수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4~5배씩이나 주고도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알 수 있다.(더 고되게 장기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감안해도 말이다.)

한국의 의사 소득은 OECD 중 최고 수준인 반면 의사 수는 꼴찌 수준이다. 의사들이 증원에 반대하며 수가 인상 운운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지금처럼 의료를 시장에 내맡겨서는 안 되고 민주적 계획과 배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임현택은 시장주의자로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규제는 거부하고 정부 지원은 늘리라고 요구하니 도무지 집단이기주의가 따로 없다.

건강보험

개원의들의 휴업이 하루 이상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영업자인 개원의들은 노동계급의 일부인 전공의들과 달리 휴진이 곧바로 소득 감소로 직결된다. 의협 회원들은 의료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이기도 하다.

임현택의 말과 달리, 의사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 있는 것도 아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임현택을 공개 비판하면서, 의사협회와 아무런 합의도 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협이 16일에서야 내놓은 3대 요구도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공의 처우 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대 증원에서도 절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측의 요구는 전공의들과는 다른 개원의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의협의 3대 요구는 비급여 진료 제한 조처 폐지와 수가 인상을 목표로 삼는 듯하다.

노동계급의 일부인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더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그



윤석열 정부나 의협이나 대중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중 다수가 아직 계급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이토록 단호하고 강경하게 싸울 수 있는 것도 그들의 계급적 조건 덕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유예된 행정처분을 집행하겠다고 협박했다.

명목상으로는 행정명령을 중단하겠다고 퇴로를 열어 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자신의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정부가 업무유지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린 상태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공을 보며 전공의들 사이에 동요가 없지는 않았던 듯하지만, 대다수는 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듯하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이어 나가자 개원의들과 대학병원 교수 일부도 '전공의들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투쟁에 가세하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대부분의 의료 기관을 민간에 내맡겨 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행정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구상권 청구 등을 고려한다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별로 없고, 가뜰이나 의사가 부족한 마당에 병원 측이 그런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진료 공백을 해소할 대안도 없으면서 제재 협박만 앞세운 정부는 대중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들의 저항이 더 커지고 길어지면 예전처럼 수가를 인상(고 보험료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개원의들과 일부 전공의들을 회유하려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노동계급 등 서민층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는 일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의료 시장화를 추구하는 한은 의사가 늘어나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에 내맡겨진 의료는 노동계급 등 서민층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왔는데, 이제 그나마 있는 기능조차 정부의 사이비 '개혁'과 다수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

대북 송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속지 말라

김문성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이화영 측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재판과 직결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이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돈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주장을 수용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기초해 이재명을 제3자자녀 물죄로 기소했다.

쌍방울이 이재명에게서 그 대가(사업상 특혜)를 받기 위해서 이재명이 아닌 제3자(북한 노동당)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다. 이재명에게 부패와 친북 혐의를 모두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우파에 유리하게 악용하고 있다

돼 검찰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대북 송금 대납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 후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대북 송금의 성격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송금의 성격 규정 부분에서 “~로 보인다.” “[김성태가] ~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서술어가 늘어난다.

이재명과 쌍방울의 유착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

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라지고, 대북 송금 대납 의혹으로 쟁점이 바뀌었다.

지금 이화영·이재명·민주당이 재판에 반발하는 핵심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쌍방울 회장 김성태 등 재판 핵심 증인들이 재판 도중 진술을 변경했고 검찰이 이 증인들을 회유한 정황이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이 아니라 쌍방울 그룹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국정원 보고서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무시한 것이다.

탐사 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5월 국정원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대책을 세웠다.

이처럼 판결만이 아니라 재판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은 이화영 1심 재판부에 이재명 재판을 배정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비밀 외교에 대한 노동계급 국제주의의 입장

검찰과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김대중 정부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행한 대북 송금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이 요구한 돈을 보냈고, 그 상당 부분을 현대그룹이 대납했다. 현대그룹은 그 대가로 금강산 관광 등에서 남북 경제협력 우선권을 챙겼다.(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 수용으로 이들 다수가 처벌받았다.)

국가와 지배계급 정치인들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국제 사안을 대중 몰래 비밀 외교로 처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당장 윤석열의 대미·대일 외교, 노무현·이명박의 한미FTA 협상, 이명박의 소고기 수입 협상, 박근혜의 위안부 문제 강제 종결 협상 등이 전형적인 사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접적 무기 지원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남북 간 마후 교섭도 역사가 길다. 박정희·전두환 등 냉전 독재정권이 대북 비밀 특사를 보냈다. 공안 탄압을 벌이던 이명박 정부도 뒤로는 대통령실

장을 시켜서 북한 정부와 몰래 접촉해 정상회담을 타진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1996년 총선에서 이기려고 김영삼 정부 관리들이 북한 군부와 관료들에게 돈을 주고 판문점 총격 사건(이른바 ‘총풍’ 사건)을 일으키도록 사주했던 일이다.

지배계급이 비밀 외교와 뒷거래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대중에게 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게만 이로운 일을 대중에게도 이롭다고 마냥 속이기가 힘들 때 지배자들은 비밀 거래로 대중을 속인다.

그래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늘 지배계급의 비밀 외교를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진실을 폭로하려고 해 왔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정부가 맨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러시아·영국·프랑스 등의 비밀 협정(전쟁 승리 후 독일 등을 나눠 가지자고 합의한)을 공개한 것이었다. 그때 레온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농민 정부는 온갖 음모와 밀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비밀 외교를 철폐했다. … 우리에게는 숨겨

야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조처는 독일 등 제1차세계대전의 교전 상대국 노동계급에게 러시아의 혁명적 노동계급이 국제주의적 연대를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국제 노동계급에게 전쟁의 성격에 관한 진실을 알리고, 러시아 혁명 정부가 교전 상대국 노동계급의 편이며 러시아나 독일 지배자들의 편이 아님을 보인 것이다.

최근 사례를 들자면, 하마스가 참여한 휴전 협상은 협상 과정이 비밀인 것은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부패한 중동 지배자들이 중재하고 미국·이스라엘과 타협해야 하는 휴전 협상으로는 평화도 독립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원칙은 이처럼 분명하지만, 구체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각각의 외교 행위를 다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는다. 가령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비밀 협상이 ‘총풍 거래’와 똑같은 수준 없다.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2012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을 지지할 수는 없다. 2012년 고조된

안보 위기 국면에서 우파는 그 대화록을 친북 마녀사냥 분위기 조성에 써먹었다.

이처럼, 대중에게 비밀인 외교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쟁점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행위 주체를 구별하고, 목적과 수단의 객관적 효과를 따지는 것이다.

이재명·이화영이 대북 마후 교섭을 시도한 2019년 여름은 그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파탄난 결과로 남북한 간에도 긴장이 다시 조성된 상황이었다. 이런 때 남북 간 평화적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긴장 완화에 일조하려 한 시도를 추상적·도덕주의적으로 규탄하는 것은 분별없는 일이다.

법적 유죄 여부는 전혀 별개이다. 진정한 평화는 보수적인 기성 질서를 지키는 준법에서 오지 않는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파의 기를 살리고, 최대 정적을 제거하고, 개혁과 평화 염원을 김새게 만들려고 한다.

1930년대 프랑스 인민전선의 교훈은 무엇인가?

찰리 김버

두 종류의 반(反)파시즘 “단결”: 트로츠키 vs. 스탈린

프랑스에서 좌파적 선거 연합인 인민전선을 결성해 파시스트들의 부상에 맞서자는 주장은 1930년대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모방하려는 것이다.

1934년에서 1938년까지 프랑스에서는 대중 파업과 공장 점거가 벌어지고 노동자들이 파시즘과 좌파 정부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 가장 활력 있고 단호하고 희망을 주는 요소들은 언제나 노동자들 자신의 활동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인들에게 기대는 것으로는 파시즘의 승리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파시스트 조직들은 프랑스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실업을 이용해 거대한 조직을 구축했다. ‘불의 십자단’은 회원 수가 1930년 1만 3000명에서 1934년 3만 명으로 늘었다고 으스댔다.

지배계급 정치는 혼란에 빠졌다. 어떤 정당이나 교섭단체도 의회에서 안정된 다수를 이루지 못했고, “안정”을 표방한 세력들은 부패 스캔들로 산산조각 났다.

1934년 2월 6일, 파시스트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중도 좌파 정부를 퇴진시켰고 국회의원들은 더 우파적인 정부를 구성했다.

파시스트들의 이 공격은 노동계급 내 가장 선진적인 사람들을 화들짝 정신이 들게 한 사건이었다. 운동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전기 충격 요법 같은 구실을 했다.

당시 노동자 정당들은 날카롭게 나뉘어 있었다. 공산당은 프랑스 사회당과 같은 사민주의 정당들을 “파시즘의 왼쪽 날개”이자 나치의 “쌍둥이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다. 사회당 지도자들은 공산당을 무모한 모험주의자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양당의 기층 노동자 활동가들과 어떤 당에도 속하지 않은 노동자 활동가들은 파시즘에 반대하는 대중 저항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상층부의 분열이 한동안 계속됐다. 공산당은 2월 9일 시위에 나서면서 다른 세력은 아무도 끌어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시위대를 공격했고 시위 참가자 6명이 죽었다.

방어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공산당은, 사회당의 후원하에 조직되고 있던 노동조합 행동의 날을 지지했다.

그 2월 12일 총파업은 눈부신 성공을 거뒀고, 400만 명 이상이 노동총연맹(CGT)의 호소에 응해 파업에 나섰다. 파리에서는 우체국 3만 1000곳 중 3만 곳에서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다. 대중교통이 멈췄다.

건물 공사 현장이 텅 비었다. 시트로앵 자동차 공장은 가동이 멈췄다.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다.

비슷한 광경이 많은 지방 도시들에서 되풀이됐다. 노동자 약 450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100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파리에서는 사회당과 공산당이 별도의 대열을 이루고 나시옹 광장으로 행진했다. 당시 그 현장을 목격한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잠시 적막하고 긴장된 순간이 지나간 후, 당과 노조의 지도부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두 대열이 만나면서 엄청난 환희와 열정이 일었고 희열에 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단결! 단결!” 하고 외쳤다.”

이후 총리가 되는 사회당원 레옹 블룸은 당시 행진 현장에 있었는데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인민이 성난 파도처럼 들고일어나 인민의 의지가 노동계급의 행동 통일을 강제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지역 수준의 반(反)파시즘 위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대부분의 경우 이 위원회에는 당 전국 지도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산당원들과 사회당원들, 그 밖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런 반파시즘 위원회들이, 공산당과 사회당이 지난한 협상으로 도출한 관료적 협약보다 훨씬 중요했다.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망명자 신세가 된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1934년 6월에 다음과 같이 썼다. “대부르주아지의 지도 아래 프랑스는 자본주의 세계가 와해되는 가운데 침몰하고 있는 중이다. 사회의 지배적 무리들, 정권의 모든 기관들 속에서 추문이 높고 있다. 부자들의 퇴폐적 영향력이 번지고 있다.

“죽어가는 자본주의는 파산 상태이



1936년 6월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가 분출하자 공산당은 인민전선에 충실하고자 파업을 종로시켰다

다. 그리고 지배계급에게는 이런 역사적 파산에서 벗어날 방책이 오직 하나 뿐인데, 바로 근로 대중에게 더 많은 고통을 안기는 것이다! 모든 개혁, 심지어 가장 하찮은 개혁까지도 억압하라! 민주주의적 지배 체제를 억압하라!”

“전 세계에서 파시즘의 압제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자본주의의 최후의 수단이 되고 있다.”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을 묶어 내는 노동자 동맹이 반드시 조직돼야 하고, 이를 통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든 세력을 예외 없이 단결시켜야 한다.

“파시즘과 반동, 전쟁에 맞서는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는 프티부르주아 단체들(평화주의자들, 인권동맹, 전선당 등)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지만, 그런 동맹은 부차적 중요성만을 갖는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계급 자신의 단결된 행동을 작업장과 산업 중심지의 노동자 지구에서 이뤄내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자,

뒤늦은 대응으로 스탈린은 180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각국 공산당들에게 사민주의 정당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세력과도 협약을 맺으라고 요구하면서, 그것이 파시즘에 맞서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프랑스 공산당은 국가를 방어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고, 식민 지배 반대 선동을 포기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투쟁을 뒷전으로 미뤘다. 공산당은 “가족 수호”를 내세웠는데, 조국을 방어하려면 인간 재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프랑스의 삼색기가 이제 적기와 나란히 걸렸고 공산당은 급진당과 협약을 맺었다. 급진당은 기성 정치의 철저한 일부였고 사회주의 조직이 아니었다. 급진당이라는 이름은 거짓말이었고 그들이 급진주의를 주장한 것은 사기극이었다.

인민전선 선거 연합은 지극히 온건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인민전선을 대거 지지했다. 사회당은 의석이 20석 늘었고 공산당은 증가폭이 더 커서 60석이 늘었다. 반면, 급진당은 46석을 잃었다.

1936년 총파업: 인민전선이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을 억압하다

1936년 5월, 블룸이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려고 한 달을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사회를 바꾸려고 스스로 행동에 나섰다. 르아브르에서 파업이 벌어졌고 이후 툴루즈에서도 파업이 벌어졌다. 활동가들은 대체 인력 투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장을 점거했다.

파리에서는 금속, 자동차, 항공 부문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다. 르노 자동차 공장의 한 파업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전술은 점거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티는 것이다. 마치 포위된 도시처럼 말이다.”

“공장 바깥에서 우리는 실업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친사측 노조와 파시스트에 맞서 단결을 유지하지 못한다.”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자신이 점거한 공장 내 분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완전한 기쁨, 순도 100퍼센트

의 기쁨이다. 공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입구를 지키는 노동자의 웃음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전에는 모두가 각자의 기계 앞에서 외로웠지만 이제는 작업장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기쁨. 모임을 꾸리고 수다를 떨고 함께 식사하는 기쁨. 기계들의 무자비한 소음 대신에 음악과 노랫소리, 웃음소리를 듣는 기쁨.”

1936년 6월 파업 노동자 200만~300만 명이 자신들의 공장을 점거했다. 역사가 줄리언 잭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파업에서 자유로운 산업 부문은 거의 없었다. 노동자 3만 2000명이 일하는 대형 공장인 르노 자동차 비양쿠르 공장부터 아주 작은 작업장까지... 노조 조직률이 비교적 높은 광산과 항만부터 노조원이 전혀 없는 백화점까지 파업

물결이 휩쓸었다.”

사용자들은 후퇴했지만, 인민전선은 한사코 기존 질서를 회복시키려 했다. 블룸은 사용자들과 노조들 사이의 대화를 조직했다. 블룸은 후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우리 손아귀에 들어온 사회를 정직하고 충직하게 관리해야 했다. 그것이 권력을 전 사람으로서 우리가 짊어진 책무였다.”

사용자들은 임금과 휴일, 노동자 권리를 크게 양보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정치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화를 더욱 확대하거나 노동자 평의회로 발전시키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행동을 멈춰 세웠다.

잭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블룸은 당시 사용자들이 자신을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파업 운동을 끝낸

‘구세주’로 여겼다고 그 시기를 회고했다. ... 그러나 부르주아지의 진정한 구세주는 [공산당 지도자] 모리스 토레즈였다.”

6월 11일 파리 지역의 대규모 공산당 당원 집회에서 토레즈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그래서 다음은 무엇입니까? ...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으면 파업을 끝내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요구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지만 핵심 문제들에서 승리했을 때 타협을 받아들이는 법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토레즈는 계속해서 말했다.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인민전선 정부는 결국 1938년 4월에 무너지고 권력은 다시 우파에게 넘어가게 된다.

파시즘 정부 수립으로의 길을 막지 못한 인민전선

일단 파업이 잠잠해지자 자본가들은 다시 공세에 나섰고, 모든 재정적 역량과 투자에 대한 통제력을 동원해 노동자들과 정부를 공격했다.

1936년 10월, 경찰이 파리의 ‘구르메 쇼콜라테리’를 점거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쫓아냈다. 이어서 1937년 2월 블룸은 개혁을 “잠시 중단할 때”라고 선언했다. 1937년 3월 인민전선 정부의 경찰은 클리시에서 파시즘 반대 시위를 탄압했다. 5명이 살해됐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는데, 그중에는 사회당 활동가들도 있었다.

블룸은 사용자와 대기업의 환심을 사려고 갖은 타협과 약속을 했지만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자본 유출에 직면해 1937년 6월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급진당의 카미유 쇼탕이 대신 총리가 됐다.

우파의 자신감은 더더욱 커졌다. 1938년 11월 재무부 장관 폴 레이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그 본질상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법칙들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 법칙들이란 바로 이윤의 법칙입니다. ... 오늘날 유럽에서 프랑스의 생활 방식, 즉 250억 프랑을 무기에



인민전선 정부를 낳았던 바로 그 의회가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친-파시스트 비시 정부를 승인했다

지출하는 동시에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것이 계속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정부는 파업으로 쟁취한 성과들을 빼앗아 갔다. 예컨대 주6일 노동을 재확립했고, 군수 부문에서 특근을 거부하면 제재하는 조치를 부활시켰다.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는 경찰과 준군사 조직을 풀어 공격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뒤늦게 행동을 명령했지만 때

는 너무 늦었고 노동자들은 이미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다.

가장 수모를 겪은 이들은 르노 노동자들이었다. “[1938년] 르노 파업이 끝날 때의 분위기는 1936년 6월 공장 점거 당시 축제 분위기의 음울한 반전이였다. 패배한 노동자들은 경찰의 강요에 의해 공장 바깥으로 행진하면서 파시스트 경례를 하고 “경찰 만세!”를 외쳐야 했고, 그러는 동안 한 경찰관이 쇠

막대기를 탕탕 쳐 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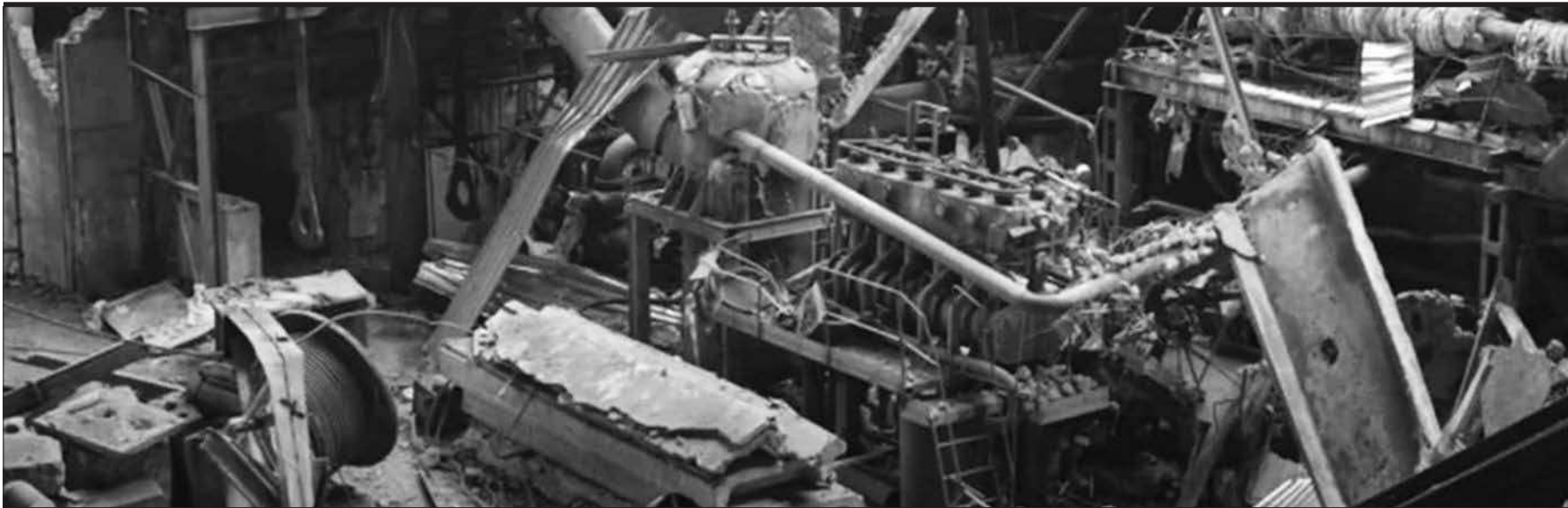
가혹한 탄압이 이어졌다. 이는 1939년 나치가 침공하고 나치의 승리 후 국가원수 페탱이 프랑스 지역 대부분에 친-파시스트 정부(왼쪽 사진)를 세울 조건을 닦았다.

혁명이 다니엘 게랭은 다음과 같이 썼다.

“수많은 오류 중 가장 해로웠던 것은 사회당이 이끌고 급진당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인민전선 정부가 노동자들 자신의 정부라고 노동자들이 믿게 만든 것이었다.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 정부의 여러 부처에 참여한 탓에 이 국가가 더는 계급적 국가가 아니고 복지 국가라는 환상이 널리 퍼졌다. 우리는 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다리시오. 인내심을 가지시오. 고삐 풀린 맹동으로 위대한 동지들을 괴롭히는 것을 삼가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인민전선과 1936년 파업의 경험은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계급의 독립성과 혁명적 조직의 필요성도 잘 보여 준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우크라이나 국영 트리필스카 화력발전소

사진 출처: Centnergo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전황

김인식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5월부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5월 무력 시위 차원에서 모스크바로 드론을 날리기 시작했다. 9월에는 러시아 영토 내 군사 관련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공격 드론은 러시아의 정유소·저장소 10곳과 금속 공장 및 광산 시설 3곳을 공격했다.”(《파이낸셜 타임스》 4월 2일 자)

이런 공격으로부터 러시아가 입은 피해는 별로 크지 않았다. 반면 러시아의 반격은 가공할 만했다. 예컨대, 러시아군은 4월 11일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국영 트리필스카 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파괴했다. 트리필스카 발전소는 키예프(키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수도와 인근 지역에 전기를 공급해 왔다.

활공 폭탄

러시아는 옛 소련제 재래식 폭탄에 비행 날개와 위성항법시스템을 단 신형 무기인 ‘활공 폭탄’을 개발했다. 러시아 공군 전투기에 실려 투하되는데, 최대 1500킬로그램에 달하는 폭발물을 싣고도 비행 거리가 60킬로미터를 넘는다.

도네츠크 전선의 한 우크라이나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활공 폭탄은 매우 무겁고 치명적인 무기다. 폭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 건물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위력이다.” 활공 폭탄이 지상에 떨어졌을 때 너비 20미터, 깊이 6미터에 달하는 구멍을 남길 정도의 위력을 지녔다고 한다.

게다가 미사일과 일반 포탄에 비해 생산(개조) 비용이 저렴해 러시아 입장에선 가성비 높은 효자 무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 등 격전지에 활공 폭탄을 퍼붓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요충지 아우디이우카를 장악한 것도 활공 폭탄 수백 발을 발사해 마을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활공 폭탄의 사정거리와 파괴력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도록 놔둘 수가 없다. 미국 등 서방은 성가신 평화보다는 끝없는 전쟁이 자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미군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굴욕적으로 철수했다. 미국은 거의 20년을 끈 전쟁에서 패배하고 탈레반에게 권력을 넘겨줬다. 미국이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세계에 강요할 능력이 저하됐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다.

물론 미국 등 서방 지도자들은 푸틴의 도전에 응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서방 권력자들은 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교전 금지라는 금기를 깰 의향은 없었다. 세계적 핵 전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이 벌어지는 이유다.

미국 등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는 청년들을 갖다 바쳐 동부 전선에서 부상당해 불구가 되거나 죽어가도록 만든다.



미국의 턱밑에 있는 쿠바로 향하는 러시아 군함

사진 출처: 로이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면에 있는 제국주의 정치

핵 잠수함 등 러시아 군함 4척이 6월 12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의 턱밑에 있는 쿠바에 도착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군은 17일까지 머물며 쿠바군과 함께 미사일 훈련을 실시했다.

이것은 5월 하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경보시스템 레이더 기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무력 시위였다.

서방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6월 14일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약 68조 5000억 원)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에 자국 지원 무기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고, 이달 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동부 접경 도시 벨고로드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하이마스(미국산 다연발 로켓포)로 타격했다.

2022년 2월 푸틴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결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님을 보여 주는 가장 최근 사례들일 뿐이다. 실제로는 세계 최대 핵 강국인 미국 등 나토와 세계 2위 핵 강국인 러시아 간의 대리전이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610억 달

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 안에 서명하면서, 폴란드에 보관돼 있던 무기들이 5월부터 키예프(키이우)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 장교들은 전선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러시아군의 진격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늦출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미국 등 서방의 지원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610억 달러는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올해 미국에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대규모 지원 패키지다.

유럽의 한 고위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새 지원을 받으면 러시아군의 주요 적진 돌파를 향후 12개월 동안 막을 공산이 “꽤 높다”고 말했다(로이터, 4월 23일 자). 결국 시간 벌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병력 부족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러시아 인구는 약 1억 45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다. 매달 대략 3만 명의 신병을 어렵지 않게 충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400만

▶ 11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우크라이나 국방부

러시아 본토로 발사되는 미국산 다연발 로켓포 하이마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본토를 자국 지원 무기로 공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전망: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까?

트럼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반대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해야 한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고립주의, 편협함,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예 트럼프를 “친러시아파”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를 패배하도록 놔둘 거라고 생각한다.

6월 13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는 7월에 열릴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매년 400억 달러(약 55조 원)를 지원하는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의 주요 안건에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과의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이 트럼프의 귀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미국 중심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스톨텐베르그의 목표는 트럼프의 “고립주의”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한 1991년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듯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유일한 전선이 아니다. 미국의 후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고전하며 수렁에 빠져 있다.

또, 예멘에서는 10년 동안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주역은 지역의 두 강대국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란은 러시아의 동맹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드론은 이란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동맹이다.

중국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28년께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사를 보면, 경제력 수준에서 강대국들 간의 세력 재편이 진행되면 그와 동시에 지정학적 영향력과 군사력 수준에서도 세력 재편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졌다.

미국 지배자들은 경제력의 상대적인 쇠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체제의 피라미드 꼭대기를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다. 이것이 조지 W

부시 정부를 지탱하고 미국을 “테러와 의 전쟁”으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구상한 ‘미국의 새로운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이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중국을 러시아·북한·이란과 묶어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려고 애썼지만(디커플링) 실로 어려운 과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주도해 4월 20일 하원을 통과한 동맹국 안보 강화 지원 패키지에는 중국해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대만에 81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서방 제국주의의 위세뿐 아니라 미·중 간의 세력 균형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설령 11월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운명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적의 손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오랜 논리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운명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적의 손에 넘겨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되는 것이 낫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오랜 논리다

▶ 10면에서 이어짐

명으로 러시아의 3분의 1도 안 된다.

젤렌스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징집 연령을 낮추고 징병법을 개악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은 청년들의 반발을 부를 뿐이었다.

“끊임없는 포격과 첨단 무기의 부족, 전투 패배로 인해 군대의 사기가 바닥이다. 전쟁 초기에 전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도시들에서 입대하려고 줄을 섰던 청년들의 모습은 사라졌다. 요즘에는 징집 대상자들이 징집을 피해 나이트클럽에서 오후를 보내고 있다. 많은 청년들은 아예 나라를 떠났다.”(《폴

리티코》, 4월 17일 자)

공화당이 6개월 동안 반대하다 4월 20일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런 우크라이나 전선의 사정 때문이었다. 이 지원안의 통과를 주도한 자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이었다. 존슨은 바이든이 표를 훔쳐갔다는 트럼프의 2020년 ‘선거 사기’ 주장을 지지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미국 하원에서 6개월 동안 지루하게 벌어진 다툼과 갈등은 우크라이나 전선의 교착 상태를 반영한다. 그와 동시에, 미국 제국주의의 전반적인 난맥상을 반영한다.



사진 출처 NATO

나토 국방장관 회의 나토는 매년 400억 달러(약 55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저항 조직들의 무장 투쟁을 이해하기

폭력이 나쁘다고 다들 말하지만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폭력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이 글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잡지 《소셜리스트 리뷰》 335호(2009년 4월호)에 실린 기사로, 저자 **팻 스택**은 폭력을 추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 맥락 속에서 봐야 함을 지적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듯이,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폭력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며 억압받는 자들의 저항을 비난하는데, 이 글은 이에 휘둘리지 않는 명료한 견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폭력에 반대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전쟁부터 일상의 괴롭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경우에 폭력 사용을 싫어한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반대 운동이나 각종 차별 반대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정치에 이르렀다.

그러나 본지[《소셜리스트 리뷰》] 독자들은 알겠지만, 본지는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지지한다.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영감을 주는 인류 역사 속 운동들을 모범으로 여긴다.

더욱이 본지는 여러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해 왔는데, 이 투쟁들에는 대체로 무장 저항이 수반됐다.

이런 입장은 모순이 아닐까?

우리는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폭력은 추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 맥락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지배자들의 폭력과 위선

자본주의는 폭력적인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부를 소유·지배하는 자들이 부를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부유해지는 체제이다. 그리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 무장한 대규모 물리력을 구축한다. 자본주의는 전쟁을 일으키고, 저항을 분쇄하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장애인으로 만들고, 죽인다. 그리고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한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의 잔혹성을 부추긴다. 끔찍한 폭력 범죄와 언뜻 보기에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폭력 행위는 흔히 자본주의의 왜곡된 가치와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박탈감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 체제는 일부 사람들이 다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들을 무차별한 폭력으로 짓밟은 미국 바이든 정부와 경찰

른 일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굴도록 부추기기도 한다.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적개심이 자라나게 한다. 피부색·인종·종교·섹슈얼리티·젠더가 동원돼, 사람들이 자기를 착취하고 천대하는 자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게 한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어마어마한 위선과 함께 자행된다는 점이다. 지도자들, 정치인들, 언론들은 소리 높여 폭력 행위, 범죄, 테러리즘을 비난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정도로 막대한 규모의 폭력을 그들 자신은 자행하고 지원한다.

그들이 이럴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강제력과 거짓말을 모두 동원해 지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대체로 자신들의 세계관이 유일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가하는 폭력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국가에 맞서는 폭력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낙인찍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도만 봐도 그렇다. 언론이 이스라엘의 행위에 일부 유감을 표할 때조차 행간에 깔린 메시지는 따로 있다. '이 대결에서 지지해야 할 측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는 민주적인 의회가 있다, 이스라엘군은 제복을 입고 있다,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있고 정규군의 병법을 쓴다 —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가도 없는 피조죄한 자들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제국주의라는 압도적으로 더 큰 폭력에 맞서는 하마스의 무장 저항

테러리스트처럼 생겼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정규군이 있지도 않고 저항 운동의 방법을 쓴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전쟁으로 격퇴해야 하는 테러리스트 세계"의 일부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엄청난 부정의와 수모를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유도한다. 그저 한편에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세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렇지 않은 세력이 있다고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억압에 맞선 무장 저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국민회의(ANC)의 지도자였던 넬슨 만델라 [2013년 사망 — 역재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호감을 표하는 정치인일 것이다. 그러나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테러리스트" ANC 지도자들보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적 지배자들을 더 친근하게 여긴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만델라의 투쟁은 옳았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나?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무장 저항은 정당한가?

이 세 질문 모두에 대답은 '그렇다'여야 한다. 이 말이 곧 특정 행동이나 전술, 혹은 그 근처에 깔린 전략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억압과 착취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국가가 무장력과 군대를 독점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정치 활동을 하면서 평화주의자들과 함께 행진하고 공동행동을 벌이고, 그들과 많은 목표를 공유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화주의적 저항의 영웅적인 역사에 존경을 보낸다. 징집, 전투, 살인을 거부하려면 많은 경우 커다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자본주의 정치인이나 언론과는 달

▶ 13면으로 이어짐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⑦

노동자 국가의 필요성

이전 글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폐지하려면 왜 노동자 혁명이 필요한지를 다뤘다.('왜 개혁으로는 체제를 바꾸지 못하는가', 본지 507호)

이번 글에서는 혁명을 성사시킨 후 이를 지켜내는 것이 글자 그대로 사활적라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모든 국가는 계급 지배를 위한 도구다. 국가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혁명으로 쟁취한 일체의 성과를 지키려면 노동자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혁명에서 승리한 후에도 자본주의 세력들이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고, 군대·경찰의 잔재와 극우 세력을 그러모아 내전도 일으킬 것이다. 그럴 때 저들의 잔인함은 끝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각국 지배계급은 이를 국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한편, 혁명을 성공시킨 노동자들은 새로운 국가, 즉 노동자들의 힘을 나타내는 국가를 세울 때에만 그런 반격에 맞설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새 국가는 노동자·빈민의 광범한 층에게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 국가는 혁명 과정에서 각 작업장에서 생겨나는 노동자 평의회에 기반을 뒀야 한다.

또, 노동자 국가는 혁명 군대처럼 고도로 중앙 집중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계급의 적에 맞서 모순에 빠지지 않고



최초의 노동자 국가 '파리 코뮌(1871년)'을 세운 노동자들

수중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노동자 혁명은 최초의 승리 국면에서 기존 국가의 무장력을 분쇄하는 과정에 이미 착수하고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군대의 지휘 체계는 무너졌을 것이고, 노동자 국가는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경찰과 사법부도 해체해야 할 것이다. 혁명은 그것들을 대체할 노동자 시민군과 혁명적 법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노동자 민주주의

노동자 시민군은 새로운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고, 어떤 점에서도 옛 자본주의 경찰과 닮은 점이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로 이뤄진 시민군은 노동자들이 파시스트 깡패 등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결성될

것이다. 시민군의 임금은 다른 노동자보다 높지 않을 것이고, 시민군은 고정된 직업이 아니라 한시적인 직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민군은 새 국가에서 주된 권력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 평의회들과 그 평의회들이 세우는 데 일조한 다른 기구들의 몫이 될 것이다. 노동자 평의회들과 그 기구들은 19세기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린 어떤 청사진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노동자들이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 조직화하고 투쟁을 조율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기구일 것이다.

노동자 평의회들은 대형 작업장의 잘 조직된 노동자들뿐 아니라 비공식 부문 노동자와 실업자, 병이나 장애 등으로 더는 노동할 수 없게 된 사람들까지 모두 포괄할 것이다.

조직 노동계급이 상대적으로 소수인 나라의 경우 혁명가들은 가장 가난한 계급 집단들을 노동자들의 지도하에 단결시킬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단위에서 각 노동자 평의회들은 마을과 도시, 광역 수준에서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 대표들은 다시 전국 단위의 대표자들을 선출할 것이다.

이런 유기적인 민주주의 구조는 1871년 파리 코뮌, 1917년 러시아 혁명, 1974년 포르투갈 혁명 등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만만찮은 도전이 제기될 때마다 등장하곤 했다.

새로운 국가는 가장 풍부한 토론을 보장하고, 오늘날 자본주의 의회보다 노동자들의 의사를 훨씬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다. 보수 정당이나 개량주의 정당의 하수인들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대표할 것이다.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는 상이한 정당들이 있을 테지만, 혁명 과정에서 스스로를 입증해 낸 조직들이 심중팔구 다수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이처럼 대단히 민주적인 체제의 힘이, 노동자들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지배력을 지켜낼지 아니면 자본가들이 유혈낭자한 복수에 성공하게 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일곱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 글에서는 혁명 이후의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에 관해 다룰 것이다.

▶ 12면에서 이어짐

리, 평화주의자들은 위선적이지 않다. 그들의 신념은 일관된다. 우리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주의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근본적 문제에서 그들과는 이견이 있다. 우리는 노예가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해 선택하는 폭력과 노예 소유주의 폭력 사이에 심대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심대한 변화는 천대받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더 감내하기를 거부하고 기존 질서와 그 지배자들을 타도하는 저항을 통해 벌어졌다. 흔히 이런 저항에는 폭력이 수반됐다. 억압자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폭력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막대한 무기가 동원

돼 부자와 권력자들이 국내에서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가장 부강한 국가들이 더 작고 가난한 국가들을 단속하고, 부와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사람들과 자본주의 체제는 투표로 쫓아낼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부·특권을 대중 투표에 쫓다고 절대로 순순히 내어 주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타도돼야 한다. 그런 타도는 폭력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폭력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폭력을 사용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특권을 가진 소수가 다수의 이익을 거슬러 부와 권력을 거머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잔

인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 혁명은 사회의 다수가 자력으로 착취와 천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수의 혁명적 운동은 특권적 소수에게 잔인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다. 혁명의 목적은 세계에서 전쟁과 대량살상 무기를 일소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람들이 빈곤과 소외에 시달려서 서로에게 가하게 되는 일상의 폭력도 일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참혹함을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평화주의의 세계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Pat Stack, 'V is for Violence' (2009, 4, 1) / 번역 양효영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대북 전단 문제
해방은 외부 개입이 아니라
북한 인민 스스로 쟁취하는 것
- ★ 삼성전자노조 투쟁
- ★ 립서비스로 그치는 중국 정부의
'팔레스타인 지지'
- ★ 6.23 전국 집중 행동의 날
지역들에서 6.23 동원이
조직되고 있다
- ★ 기말고사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대학생 운동
- ★ 《내 이름은 데몬 코퍼헤드》
(바버라 킹솔버) 서평



신간 소개 |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정치적 물음에 답하고 해방의 전망을 제시한 책

이원웅 편저자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문제와 중동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재조명되거나 새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개 전쟁 이전의 과거를 다루거나 전쟁의 특정한 측면을 다루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역사는 현재를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이지만, 전쟁은 그 외에도 여러 중요한 정치적 물음 또한 제기한다.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인 혐오인가? 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이끌고 있는 하마스, 더 나아가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두 국가 방안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등등. 이런 까다로운 정치적 물음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파장

이 책은 이 전쟁을 단지 끔찍한 학살로만 보지 않는다. 이 전쟁은 미국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 전반에 심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팔레스타인 저항과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주장을 반박하고, 이스라엘 사회의 성격,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 노동계급에게 해방의 잠재력이 있다

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등을 제시한다.

특히, 현재 전쟁의 맥락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이 책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실,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이 처한 곤경을 돌파할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끔찍한 인종 학살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은 더더욱 요원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전 세계와 특히 아랍 세계에서 일으

키고 있는 파장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가능케 할 격변이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 책은 그런 격변이 왜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시중의 많은 책이 이런 가능성을 보지 않은 채 '국제 사회'의 개입이나 이스라엘 내부의 변화 같은 신기루 같은 대안을 좇는 것과 날카롭게 구별된다.

이 책이 제시하는 전망은 팔레스타인 해방에서 팔레스타인인 자신들과 아랍 노동자·빈민 대중의 구실에 주목한다. 아랍 노동자·빈민에게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강대국들에 맞설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이원웅, 앤 알렉산더 외 지음
책갈피, 360쪽, 19,000원

실질적 힘이 있고, 그 잠재력을 깨우는 데서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이 핵심적인 구실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노파심에서 덧붙이자면, <노동자 연대> 독자들은 이 책에 실린 글들을 이미 봤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본지에 실리지 않은, 심층적 분석이 담긴 여러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스라엘의 끔찍한 인종 학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엘코리아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5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 영상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61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화물 노동자 1만 명이 윤석열 정부에 맞선 반격을 다짐하다

운송료를 인상하라

6월 15일(토) 오후 2시 여의대로에 1만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모였다. 파업을 앞두고 1만 2000명이 모인 2022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가 모였다.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다들 자신의 지역에서 참가자가 상당히 많다고 고무된 표정으로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를 강경하게 탄압했음에도 노동자들의 투지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22년 말 윤석열 정부의 탄압과 민주당의 배신으로 16일간의 파업이 패배하고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구실을 해 온 안전운임제가 종료된 뒤 화물 노동자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였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새벽 6시 거제도에서 출발했다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컨테이너의 경우 건당 80만~90만 원 하던 것이 안전운임제 종료 이후에는 60만 원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서 운송사들이 다 떼어먹고요.”

화물연대가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0퍼센트가 “생계의 어려움으로 부채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이 잠을 줄이고 일을 늘려 월 평균 노동시간이 267.9시간에 달하는데도 실질임금은 안전운임제 종료 이후 16.4퍼센트나 삭감됐다.

이날 집회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단어는 “반격”이었다. 화물 노동자들 탄



되살아나는 투지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와 정치 위기 속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다. 6월 15일 서울 여의도 화물연대 결의대회

압해 온 윤석열 정부에 맞서 반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정치 위기에 빠진 상황이 노동자들에게 정권에 맞설 자신감을 주고 있는 듯하다.

반격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안전운임제를 종료시킨 이후 표준운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준운임제가 실시되면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준 운임이 정해질 뿐 아니라 사용자들이 적정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재도입시 이전보다 제도를 개선해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국회 사업과 국토부 교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품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합원 동지들과 소통하고 단결해서 이후에 총파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파업 때 안전운임제의 품목과 차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기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자 약속을 어기고 안전운임제 폐지마저 막지 않았다.

민주당에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회 일정에 기

대 걸지 말고 현장의 투쟁과 연대 확대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장재석 화물연대본부 포항지역본부장은 6월에 포스코 사업장 운송료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층 투쟁이 성장하고, 연대를 확대해 성과를 낸다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키워 향후 전국적 투쟁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기동 화물연대본부 광주지역본부 금호지부 곡성지회장은 “지난[2022년] 두 번의 파업은 많이 아쉬웠다”며 “이번 투쟁은 힘 있게 윤석열 정권과 자본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정선영

▶ 16면에서 이어짐

국민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가 지난 9일 전시 내각에서 사퇴한 데 이어, 투표권 없이 전시 내각에 참여했던 두 의원(가디 아이젠코트, 힐리 트로페르)도 사퇴하면서 전시 내각은 반쪽짜리로 전락한 상태였다.

베니 간츠는 네타냐후의 “정치적 고려 탓에 운명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 뒤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려고 인질 교환 협상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니 간츠 등 이스라엘 야당 정치인들은 결코 팔레스타인인들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의 네타냐후 비판은 결코 시온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베니 간츠는 네타냐후가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의 귀환을 앞당기는 것, 군사적 성과를 거두되 외교적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 이란에 맞서 미국 등 서방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신속하게 파괴하지 못했다는 것이 베니 간츠의 네타냐후 비판의 핵심이다.

현재 네타냐후는 “노린 소모전”에 관심이 있는 듯하다(알자지라, 6월 17일자). 전쟁이 끝나면 10월 7일 하마스 공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가 조사될 것이고, 새롭게 치러질 선거에서 네타냐후는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전시 내각을 해체하고 국가안보회의가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한 것도 그런 포석의 일환인 듯하다. “[국가안보

회의를 통한 결정은] 네타냐후가 직접 모든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에게 도전하지 않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뜻이다.”(예루살렘 소재 히브리대학교 정치학과 학과장 기드온 라하트, 알자지라, 6월 17일자)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분열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그들 중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그들의 분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김인식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해체되다

이스라엘의 정치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네타냐후 정부의 붕괴 가능성을 점치는 보도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앞세워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지만 그들의 저항을 분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하마스 전사들은 6월 15일(이하 현지 시각) 이스라엘군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하마스 전사들은 라파흐에서 군용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군을 향해 로켓 추진 수류탄(RPG)을 발사한 뒤 매복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8명을 사살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지상 공격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당한 역습이었다.

그다음 날 이스라엘군은 “지역적·전술적 군사 활동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매일 가자 남부 일부 지역에 한해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군사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라파흐에서의 적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 아직 작전상 바뀐 것은 전혀 없다.”(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책임자)

그럼에도 이스라엘군의 ‘주간 전투 중단’ 계획은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지배자들 내에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휴전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미국이 ‘3단계 휴전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속도전으로 통과시킨 뒤 이스라



사진: 로이터/에프에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 갈등과 분열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더욱 키워야 한다

엘더러 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비슷한 발상이다. 미국은 ‘3단계 휴전안’을 심지어 “이스라엘의 제안”이라고까지 주장했다.

미국이 ‘3단계 휴전안’으로 가자지구에서 하려는 일에 대해 누구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을 안정시키되 그것을 미국의 이익과 우선순위에 부합케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들을 어쩔 수 없이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목표는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을 분쇄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다.(본지 509호 실린 ‘이스라엘군의 난민촌 학살을 “환영”한 바이든 — 바이든에게 팔레스타인인 274명의 목숨은 사소하다’를 보시오.)

따라서 미국의 ‘3단계 휴전안’은 인도주의나 평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8개월 동안 “미국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휴전 결의를 막았고, 그 결과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3만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의 줄타기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공식 발표까지 한 마당에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주간 전투 중단’ 계획을 반대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지는 이런 결정을 내린 이스라엘군 작전참모부를 “바보”라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의 군 작전 계획 반대 발언은 이런 압력을 의식한 듯하다.

그러나 동시에, 네타냐후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6월 17일 전시 내각을 전격 해체하고 나서 새 전시 내각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벤그비르 등은 자신을 전시 내각에 참여시키라고 졸공 요구해 왔다.

전시 내각은 가자 전쟁 시작 4일 뒤인 지난해 10월 11일에 결성된 내각 속 내각이었고, 전쟁 관련 최고 결정 협의체였다.

전시 내각은 총리 네타냐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 국민통합당 대표 베니 간츠 등 투표권을 가진 3인과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3인 등 6명으로 이뤄져 있었다.

▶ 15면으로 이어짐

6-23

전국 집중 행동의 날

6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영풍문고 본점 앞 (종각역 5번 출구)

•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참가하고, 사회자·연설자로 나섭니다.

• 영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벵골어, 한국어 통역 제공

부산, 울산, 대구, 춘천에서 집회 참가 버스 운행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7550-2131